

수원캠퍼스 도서관 제기능 못해

장서·방음 시설 미비로 학생 이용률 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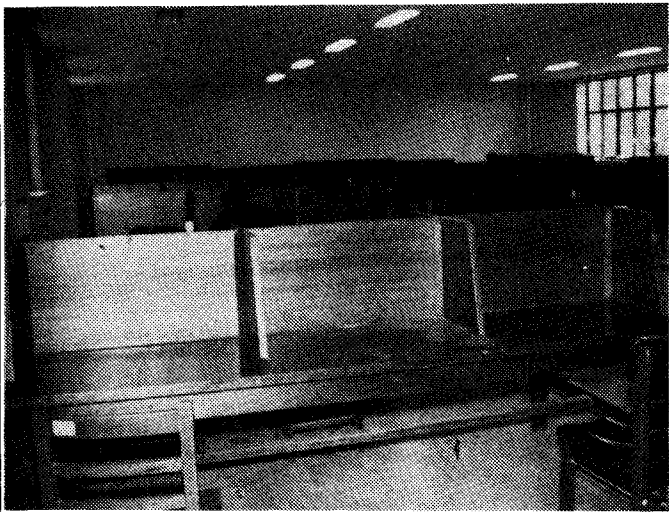
수원캠퍼스 학생회관 2층에 위치해 있는 임시 도서관 열람실이 행정상의 오류, 시설미비 등으로 학생들의 이용이 저조한 상태이다.

현재 임시 도서관은 당초 계획했던 장서구비가 전무한 상태이며 그나마 방음시설도 안되고 있어 학생들이 공부나 독서를 하기 불편한 환경이다.

김경남(서반아어·2)군은 “학생

회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려고 해도 질문을 한번 열었다 닫으면 잠깐 놀랄 정도로 평음이 나고 또 난방이나 방음장치 또한 미비하여 춥고 평창히 시끄럽다”고 말했다.

한편 도서관 사서과는 92년도 도서관 완공전까지 부족한 장서 비치 공간과 열람실좌석을 학생회관 도서관으로 확충할 계획이었으나 △장서 분류의 지연 △학



◇사진은 학생회관내 임시 도서관 열람실 전경

생회관에서 완공될 중앙도서관으로 장서를 옮기는데에 따르는 번거로움 △학생회관 도서관의 도서관리직원의 부족등으로 현재 책·결산등 일부불급한 옮겨놓은 상태이다.

이에 대해 임승양사서과장은 “현재 장서는 많은데 공대, 의대에서의 공간으로는 도저히 모두 비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학생회관에 도서관장소를 마련하여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장서정리 과정에서 92년도 중앙도서관이 완공될 경우 행정상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동을 보류중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사서과는 현재 92년도에 중앙도서관이 완공되면 장서를 학생회관도서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이동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도서관공사가 계속 지연될 경우 가중되는 장서를 학생회관2층까지 옮겨 본격적으로 학생회관도서관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해설】 학생회관이 개관한지 5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애초의 계획이었던 임시도서관이 제구실을

양캠퍼스 등록금 최종합의 14%인상 확정, 9일까지 최종등록

양캠퍼스 91학년도 등록금협회의 14%인상으로 최종 확정됐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이하 예결위)는 지난 22, 23일, 25일 3일간에 걸쳐 단과대학별로 등록금협회의 대한 학생들의 찬반 투표를 실시, 총 4천7백67명 중 3천6백94명(77.5%)이 찬성 최종 확정시켰다.

한편 교무처는 “최종등록기간을 오는 3일부터 9일까지이며 전국 신학은 본·지점을 통해 받는다”고 발표했다.

한편 수원캠퍼스 총학생회도

지난달 25일 부총장실에서 있는 91학년도 등록금 협상에서 학교측과 등록금 14%인상에 최종 합의했다.

이날 합의된 합의서에 학생 건의 사항에 대한조치를 학교당국은 학생측건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학생측 요구안을 참조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대 학발전기금 조성계획을 예결위에 발표하며 장기적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학교·학생측이 계속하여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승진교수 46명 명단 발표

서울캠퍼스 교무과는 오늘 승진교수 46명 명단을 발표했다.

(관건가사 11명)

승진교수들은 양캠퍼스 부총장, 기획관리실장, 교무처장과 평교수 1인으로 구성되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제단이 발령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교수 26명, 부교수 19명, 조교수 1명이 발령되었다.

故 이수병동문 추모제

오는 8일 공과대학관앞 통일광장에서

‘故 이수병 선배 제16주기 추모제’가 오는 8일 오후2시부터 5시까지 수원캠퍼스 공과대학관앞 통일광장에서 열린다.

‘애국혁명열사 故 이수병 선생 기념사업회’주최로 열리는 이 행사는 서울·수원 양캠퍼스에서 1년에 한번씩 번갈아 개최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올해는 수원 캠퍼스에서 열리게 된 것이다.

이재표(중문·4) 수원캠퍼스 총학생회장의 사회로 진행될 이날 행사는 개회사, 애국의례, 내빈소개, 경과보고 및 故 이수병선생 약력보고와 유족인사, 추도사, 일대기 헌정, 결의문 낭독, 헌화및 분향, 교내 행진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문익환, 백기완, 계훈제씨등 재야인사들이 내빈으로 참석하며 한철수(신방·4)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이 결

‘제23대 총학생회’ 진군식

총노선 선포와 사진전도 더불어

‘제23대 자주정회 총학생회 진군식’이 지난 28일 오후2시 1천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각 단과대학별 진군식에 이어 진행된 이날 진군식은 풍물패연합회의 길놀이로 시작하여 기수와 선봉대 입장, 내빈소개및 축사의 순으로 치러졌다.

내빈축사 순서에서 김병수대학노조위원장 “학원의 민주화와 자주화를 위해 장백기 전위원장원직복직을 정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김중건순창군 농민회장은 “농민·학생의 굳건한 연대를 통해 민중생존권확보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빛문화회에서 창작한 진군사가 낭독되었으며 총노선선

서울 인복위 교내 차량 통제

경고 스티커 부착, 과태료 징수등 방침

서울캠퍼스 인권복지위원회(이하 인복위)는 8일부터 교내차량 통제를 실시한다.

인복위는 이전의 교문앞 차량통제가 큰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 것을 인식, 10명정도의 아르바이트학생을 동원하여 불법주차·스티커미부착 차량에 대해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인복위는 주차금지구역에 차를 주차시켰을 때 경고스티커를 5회까지 부착 하는것과 차량번호판을 떼어내 과태료를 물게 하는 방법등을 총무과와 협의하기로 했으며 관할 경찰서 불법주차단속반의 도움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총무과는 정문과 후문에서 용무가 있는 차량에 대해 ‘차량출입증’을 면허증과 교환해 발부하기로 했다.

‘경회여성’ 제5호 발간

동아리에 각 2부씩 배부

수원캠퍼스 총여학생회 편집부는 지난 22일 ‘경회여성’ 제5호를 발간했다.

‘지방자치제에 들어서는 여성의 역할과 식품가공학과의 ‘남·여

평등’에 대한 본임토의 등을 주내용으로 담고있는 이번 ‘경회여성’은 총 1천5백부를 발간, 동아리마다 각 2부씩 그리고 1천부는 각 단과 여학생회에 배부할 예정이다.

교무과, 중간고사 연기 고려

4·19 혁명 기념주간등 일정 겹쳐

양캠퍼스 교무과는 8일부터 13일까지 실시 예정이었던 중간고사 일정을 학생들의 연기요청으로 연기할 것을 고려중이다.

교무위원회를 통해 최종확정될 이번 조처는 기존의 중간고사일정이 故 이수병동문추모제, 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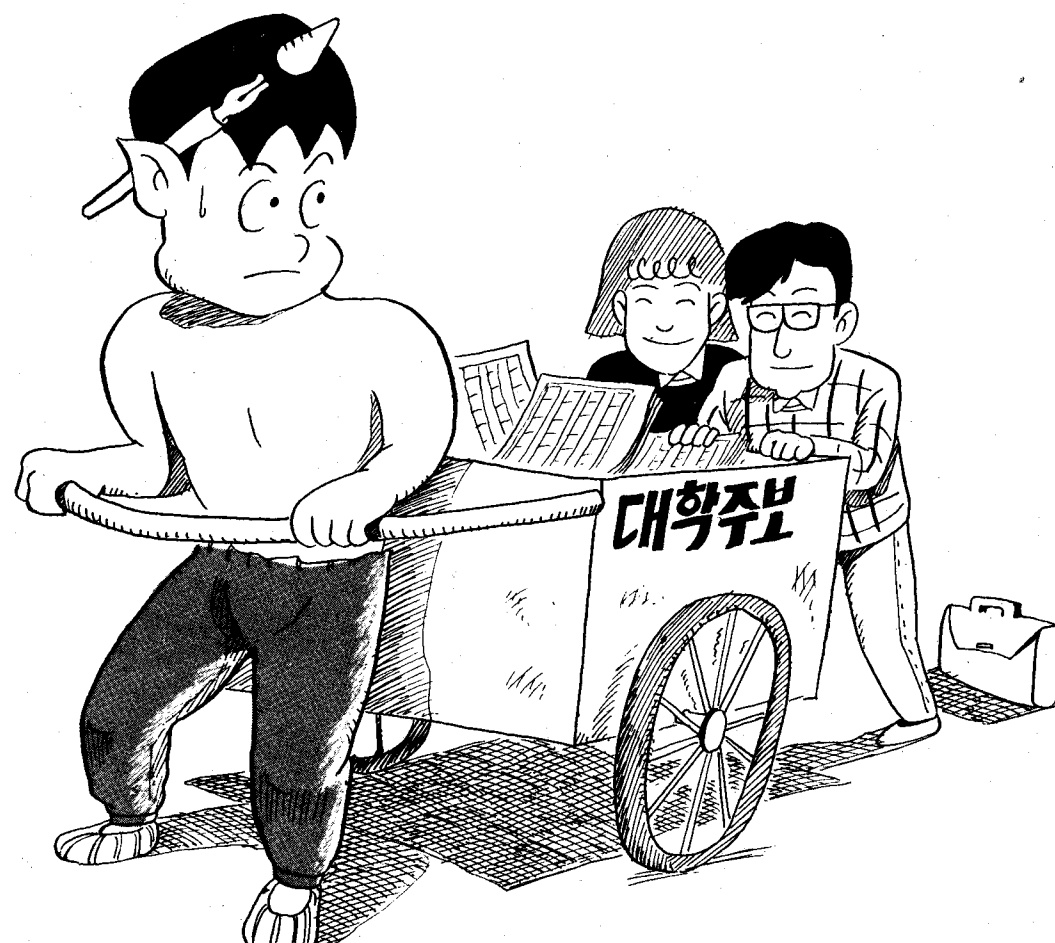
해방 세상을 향하여...

새출발
진군의날 아침에 떠오르는 신태양
타오르는 정열과, 끓어오르는 애국심으로
내 불끈된 주먹으로 조국사망의 한마음을 실현해 나

가리라.
참 민주, 해방세상을 향하여...
(지난 28일 노천극장에서 있는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발대식 중에서)
(임흥준기자)

중간고사 관계로 2주간 휴간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학주보는
기자들과 독자가 함께 만듭니다!



경희인의 理想과 思考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대학주보는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자여러분의 투고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 말해봅시다(200자 원고지 4-6매)
‘말해봅시다’는 교수·학생·직원등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란입니다. 학내외의 크고작은 문제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과 제안을 반영 합니다.
- 교수논단(200자 원고지 20-40매)
전임이상 교원이 자신의 학술적 성과를 발표하는 난입니다.
- 독자논단(200자 원고지 20-40매)
학생의 연구성과나 교수·직원·학생이 학내외의 문제에대한 심층적분석 혹은 시사적인 주의주장을 펴는 난 입니다.
- 독자문예
경희가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난으로 자신의 문학적 소양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시:(매주제한없음) ·수필:(200자 원고지 10-15매)
·비평:(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소설:(200자 원고지 80매 내외) 4·5회 연재분
- 사건·사고 제보및 정보 서비스
학내외적으로 한 번쯤 대학주보가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사안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자료및 정보를 최대한 서비스해 드립니다.(자료의 성격상 반출이 금지되거나 열람만 가능한 것도 있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고는 본사편집실로 직접 제출해 주시고, 직접 찾아오실 수 없을 경우 전화나 Fax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캠퍼스(주·야간) 963-5849, 961-0093~5
수원캠퍼스(주간) (02)745-5702 (교환:2055-6,2860)
(0331)280-2055-6, 2860
Fax 서울캠퍼스 963-5849 수원캠퍼스(0331)280-2238